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2

이삭을 바침과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함

성경: 창 22:1-18, 히 11:17-19, 롬 4:17

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 창 22:1-2.

A.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삭)을 산출한다.

1. 이삭의 생활의 근원은 그를 번제물로, 곧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 창 22:2, 7-9.
   a. '번제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 레 1:3과 각주 1.
   b. 번제물은 주로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레 1:9, 요 5:19, 30, 6:38, 7:18, 8:29, 14:24, 고후 5:15, 갈 2:19-20.
   c.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만족을 얻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식이다 — 민 28:2.
2. 합당한 교회생활은 번제물을 산출한다 — 레 1:1-2, 롬 12:1-2.
   a. 브엘세바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며 여호와 엘 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두 번제물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창 21:33, 22:1-2.
   b.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 머물수록, 더욱더 브엘세바에서 모리야로 이끌릴 것이다.

B.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 창 22:1-18, 롬 11:36.

1. 이삭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분 자신께 번제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셨다 — 창 22:1-2.
2. 약속된 씨이신 그리스도(갈 3:16)를 예표하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다시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다 — 창 22:1, 히 11:17.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기본 원칙을 본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신 것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그분께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높은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Ⅱ.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본다 — 히 11:17-19.

A.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관념에 따라 시작하거나 행하지 않았다.

B. 아브라함 안에 주입된 믿음은 그를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인 모리야산으로 이끌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였다 — 창 22:1-2, 대하 3:1.

Ⅲ.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친 장소를 '여호와이레'라고 하였다 — 창 22:14.

A. 모리야는 '야(Jah)의 이상', 곧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뜻이다. 모리야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다 — 창 22:2.

B. 창세기 22장 14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1. 모리야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체험하고 분명한 이상을 받았다.
2.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은 그분의 이상과 함께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이상을 갖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신다.

C. 오늘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은 교회생활 안에 있으며,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두신 것을 갖는다.

D.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리야산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 모리야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릴 것이며, 투명한 이상을 볼 것이다.

Ⅳ. 이삭은 바쳐진 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되돌아왔다 — 창 22:16-18, 히 11:17-19, 롬 4:17.

A. 이삭을 되돌려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다 — 히 11:17-19, 롬 4:17, 고후 1:9.

B. 이삭은 부활 안에서 되돌아왔을 때 더 이상 타고난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이었다.

C. 이삭은 바쳐진 후에 부활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어졌고, 결국 복이 되었다 — 창 22:16-18.

D. 우리의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부활의 하나님께 길을 열어 드려야 한다 — 요 11:25, 고후 1:9.

E.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분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 히 11:17-19.

1.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사, 영적인 축복, 일, 성공 등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며, 결국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와야 한다.
2.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께 바치고 그것이 죽음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복이 될 것이다 — 창 22:16-18.
3.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부활 안에서 임한다.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삭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을 것이다.

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림으로써, 이삭은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번성하였다 — 창 22:16-18, 롬 8:29, 계 21:2, 7.

A.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씨 곧 모래와 별들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 창 22:16-18, 롬 8:29, 계 21:2, 7.

1. 새 예루살렘에서 열두 지파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모래이고,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별들이다 — 계 21:12, 14.
2. 모래와 별들로 상징되는 두 백성이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

B.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번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1. 한 사람의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부활 안에서 되돌아온 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모래가 되었다.
2. 우리가 우리의 한 알의 밀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께서 그것을 죽음에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것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아래서 그것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요 12:24.

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야산은 결국 시온산, 곧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이자 좋은 땅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모리야산은 결국 시온산이 된다 — 창 22:2, 14, 대하 3:1, 히 11:17-19, 12:22-23, 계 14:1-5.

A. 아브라함은 시온산에서 번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 계 14:1.

B.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일 년에 세 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 신 16:16, 시 132:13.

C.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신약의 믿는 이들은 시온산에 있다 — 히 12:22-23.

D. 결국 우리는 모두 영원한 시온산인 새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인 지성소이다 — 계 14:1-5, 21:22.

E. 주님의 회복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건축하는 것이다 — 계 14:1, 엡 4:16, 계 21:2.

© 2026 Living Stream Ministry